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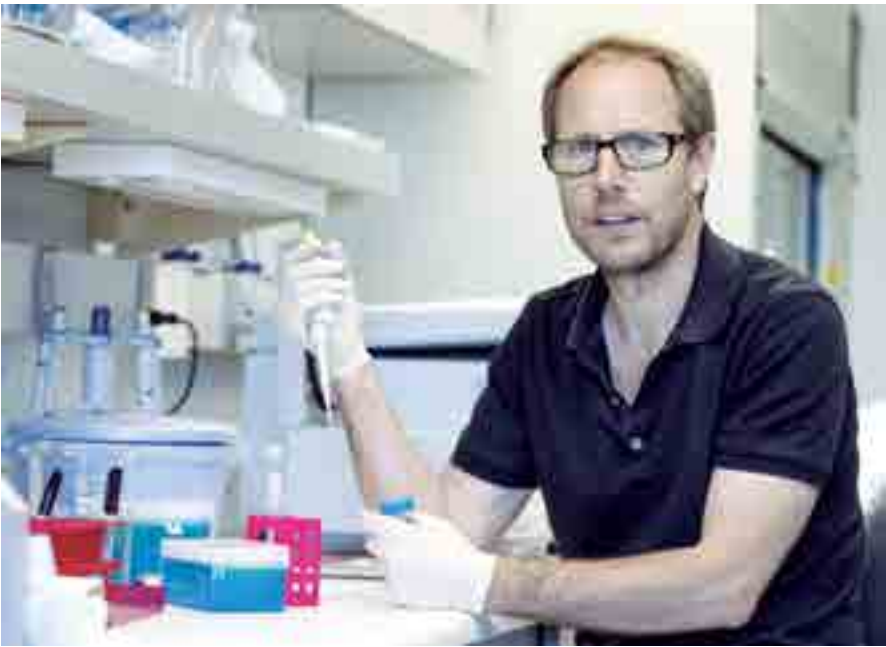
승리신문

노화는 하나의 질병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노화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늙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고 자연의 섭리라고 말한다. 심지어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조차도 노화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말 노화는 당연한 일일까? 다시 말하자면 노화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 젊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

영국왕립협회, 노화는 질병이라 정의
많은 과학자들이 노화를 질병이라고 정의한다. 놀라운 일이다. 노화가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치료 가능한 질병이라는 것이다. 노화는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왕립협회에서 2010년 노화를 질병이라고 정의했다. 프란시스 베이컨, 아이작 뉴턴 등 우리가 아는 저명한 과학자들이 회원으로 있었던 곳인데 노화를 질병으로 정의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는 노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노화의 원인을 밝히고 그 치료법을 찾겠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유명한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는 “우리는 생존기계이다. 여기서 우리란 단지 인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동물과 식물, 박테리아 그리고 바이러스를 포함한다”라고 말했다. 모든 생명체는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생존회로가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것이 생명의 본성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왜 생명체는 노화를 하는 것일까? 왜 죽는 것일까? 안 죽을 수는 없는 것일까? 사망하는 사람과 영원히 같이 살 수는 없는 걸까?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은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물음에 답을 찾았을 것이다. 지



신경과학 및 유전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신경과학자 위스 코레이 교수

금도 많은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에 대한 답을 찾고 있을 것이다.

영생 추구는 인간의 본성
그런데 사람들은 장수를 원하고 영생을 염원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장수와 영생을 입에 올리면 “욕심도 많다”고 편견을 주기 일쑤다. 정말 장수와 영생을 원하는 것은 나쁜 일일까?
영국의 철학자 스티븐 케이브(Stephen Cave)는 자신의 저서 『불멸에 관하여 (Immortal)』에서 영생의 의지(욕망)가 문명의 원동력이라고 갈파했다. 죽지 않고 오래 살려는 인간의 의지가 모든 찬란한 문명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황하 문명, 갠지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등 모든 문명을 만드는 원동력이 바로 영생의 의지라는 것이다.
진시황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해하기 쉽다. 진시황은 중국을 최초로 통

일한 황제이다. 수많은 나라들로 쪼개져서 서로 싸우고 있던 춘추전국시대를 끝내고 천하를 통일한 왕이다. 그는 자신이 건설한 진나라가 영원무궁토록 계속하기를 원했으며, 더 나아가 자신이 영원토록 그 나라를 다스리고 싶어했다. 설사 자신이 죽는다고 해도 지하세계에서 영원히 자신의 제국을 다스리려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가 건설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지하세계는 그러한 주장이 맞다고 웅변한다. 이러한 그의 영생에의 욕망(의지)이 찬란한 문명, 만리장성, 연금술 같은 과학의 발전, 엄청난 규모의 지하세계를 건설했다.
또한 이집트의 피라미드! 피라미드 또한 불멸을 믿는 파라오(왕)가 만든 엄청난 축조물이다. 과학이 미개했던 고대인이 기증기도 없이 어떻게 엄청난 피라미드를 만들었을까 불가사의라고 하는데 이 또한 불멸에의 의지가 만들어낸 문명이다. 영혼불멸사상을 믿던 고대 이집트인

들은 언젠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시신에 방부처리를 한 후 미이라로 만들어 누구도 자신의 몸을 해치지 못하게 엄청난 규모의 무덤을 만들어 그 속 깊숙히 넣어두고 보호해 두었던 것이다.

회춘의 묘약을 위한 과학자들의 노력
오늘날도 마찬가지이다. 과학자들은 연구실에서 불멸의 묘약을 만들어내려고 밤을 새우며 일하고 있다. 만일 이게 만들어진다면 엄청난 부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돈 많은 억만장자들이 앞다투어 회사를 설립하고 있다. 그중에 하나가 구글에서 설립한 칼리코라는 회사이다. 구글은 인간수명 500세 프로젝트를 세워놓고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과학자들도 스타트업을 세워서 자신의 연구를 상품으로 개발시키는 일에 나서고 있다. 알케스트(Alkhest)라는 회사를 세운 위스 코레이(Tony Wyss-Coray)는 “젊은 피가 어떻게 노화를 되돌리는지”에 대한 테드 강연을 하였고, 자신의 제자 UCSF의 사울 빌레다(Saul Villeda) 교수와 함께 핏속에 있는 회춘물질을 발견하기 위해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하버드대학교의 데이비드 싱클레어(David Sinclair) 교수 또한 최근 노화연구에 각광을 받고 있는 학자인데 자신의 연구를 제품 개발에 접목하는 노력으로 여러 스타트업을 세워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과학자들의 노력은 노화를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극복가능한 일개의 질병으로 보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수많은 시도들 중 하나이다. 따라서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더욱 영생학 실천과 보급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노화의 원인과 영생학

우리 몸은 약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생겨난 수정란이 100조 개까지 늘어난다는 게 참 신비롭다. 세포는 분열을 통하여 그 숫자가 늘어난다.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데 그러다가 성장을 멈추면 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우리 몸의 세포 100조 개가 계속 유지된다면 아마 우리는 늙지 않고 죽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각 세포들은 점점 노화가 되어 세포가 점점 줄어든다. 그것은 세포의 분열이 무한정 반복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세포의 분열 회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1961년 헤이플릭(Leonard Hayflick)이 발

견하였다. 세포분열 회수가 유한(有限)한 것을 헤이플릭 한계(Hayflick Limit)라고 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헤이플릭 한계, 즉 세포가 무한하게 분열할 수 없으므로 어느 정도 분열한 후 분열이 멈추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다. 세포분열이 멈추면 노화세포가 된다.

산화스트레스와 염증
세포는 왜 노화가 되는 것일까? 학자들이 노화의 원인이 된다고 밝힌 내용은 이렇다. DNA손상으로 생기는 유전적 불안정성, 텔로미어의 마모, 후성유전체의 변

화, 단백질 항상성 능력의 상실, 대사의 변화로 생기는 영양소 감지능력의 혼란,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 중기세포 소진, 세포내 의사소통의 변화와 염증분자의 형성(『노화의 종말』 데이비드 싱클레어 저, 참고) 따라서 원인을 제거하면 노화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부산대 의대 교수 유병팔에 의하면 이러한 노화의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활성산소의 산화스트레스와 염증이라고 한다. 즉 산소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음식을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해서 노화되며, 노화세포가 주

변 세포를 공격할 때 발생하는 염증과 대식세포가 세균을 잡아먹을 때 분비하는 사이토카인에 의해 염증이 발생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인슐린의 내성을 드는 학자도 있다.
이러한 과학자들의 연구는 몸속에 있는 물질에 관한 것인데. 그들이 잘 모르는 것은 마음에 의해 핏속 물질들이 바뀐다는 사실이다. 인간의 핏속에 있는 회춘물질이 마음에 의해서 생성된다는 것을 조희성님이 처음 밝혔다. 그것은 바이오트론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영생할 마음을 가지면 생성된다는 것이다. 과학이 아직 미개하기 때문에 영생학의 차원까지 아직 못 쫓아오고 있는지도 모른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29>

“사망을 제거해야 비로소 말세”

사람들은 이 세상이 망하는 것이 말세인 줄 알고 있다. 말세란 인간을 괴롭히고 고통과 병고와 재난과 가난을 주어 사람들을 죽게 하던 마귀의 신이 되는 사망을 제거하는 때가 말세다.

욕심이 죄요, 죄가 마귀요, 마귀가 사망이다. 마귀를 죽이는 자가 나와서 죄와 사망을 제거해야 비로소 말세가 되는 것이지 아무 때나 말세가 되는 것이

아니다. 마귀를 전멸시켜야 마귀 세상이 끝나고 잘사는 세상이 오는 것이다.

평화의 시대, 안식의 세계, 지상천국이 말세다. 말세의 뜻도 모르고 말세의 정의도 모르고 아무 때나 말세인 줄 알고 악한 일만 보면 말세가 되어서 그렇다고 잘못 말을 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다.*

발행인 칼럼

죽기 싫은 마음은 어디서 왔나

얼마 전인 3월 21일 중국 항공기가 갑자기 수직으로 추락하여 탑승자 132명 전원 사망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항공기가 수직으로 추락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에 추락원인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회수된 블랙박스를 조사해 보면 추락원인이 나오겠지만 승객들 중 그 비행기가 추락할 것이라고 믿고 탄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이다. 조종사들 비롯한 승무원들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데려다 줄 것을 거의 확실하게 믿고 탔을 것이다.
사람들은 5분 후에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른 채 영원히 살 것 같이 살고 있다. 그러한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바로 인간은 죽음을 회피하는 게 본능이라는 것에서 연원한다고 승리제단에서는 말한다. 추락할 것을 알고 탔다면 그 사람은 아마 정신인을 벗어나는 돌아이거나 정신이상자일 것이다.

죽기 싫은 마음은 어디서 왔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기 싫어한다. 심지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도 죽어간다고 하면 싫어한다. 이런 죽기 싫어하는 마음은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 인류 역사 이래로 그 누구도 이 질문을 품은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과묵하고 지식이 없어서인지 모르겠지만 60여 년간 살아오면서 이러한 질문을 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오직 한 분만 빼고
인류의 첫출발 시점으로 되돌아가면 첫 조상이 나온다. 그들을 어떻게 칭해도 상관없겠지만 편의상 아담과 이브라고 하자. 그 아담과 이브도 죽기 싫

어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죽기 싫어하는 마음은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 잘 모르긴 해도 추측컨대 그들처럼 죽기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어떤 존재로부터 비롯되었을 것이다. 공심은 데 콩 나고 팔심은 데 팔 나듯이 사해 보면 추락원인이 나오겠지만 승객들 중 그 비행기가 추락할 것이라고 믿고 탄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이다. 조종사들 비롯한 승무원들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데려다 줄 것을 거의 확실하게 믿고 탔을 것이다.

영생하는 영으로부터 전해진 마음
그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 이에 대해 승리제단 조희성님은 명쾌하게 답한다.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영생하는 영(靈)이므로, 즉 죽기 싫어하는 영생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죽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다.
한편 우리에게는 죽기 싫은 마음이 있는 반면에 죽고 싶은 마음도 있다. 그것은 또한 어디서 온 것일까? 바로 마귀이다. 마귀 또한 영(靈)은 영인데 하나님과 다르게 사망의 영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죽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은 마귀의 영으로부터 전해 받은 것이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마귀의 병존체임을 그 마음을 분석해서 알 수 있다.

영생을 하려면 먼저 영생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 속에 있는 죽고 싶은 마음을 없애버려야 한다. 자신 속의 죽고 싶은 마음과의 투쟁에서 승리하여 영생의 확신을 마음속에 정립했을 때 우리는 영생하게 된다고 구세주는 말한다. 마음먹는 대로 되기 때문이다.*

구세주에 배말씀집

신간서적
승리제단 식구용

7

2001년 4월
<한정판 인쇄 소장본>
A4사이즈 / 277쪽 / 큰 본문공배

구세주에 배말씀집 7집 펴냄

주님께서 제일 원하셨던 설교 말씀 그대로 편집한 책 출판

깊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구세주의 말씀

영생은 오직 구세주의 소유물, 따라서 말씀을 알지 못하면 결코 영생 얻을 수 없어

! 승리신문 제작 | 말씀 독학 작업에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꼭 봐야 할 유튜브 강연

최근 과학자들은 인간의 혈액 속에 회춘물질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하여 그 물질을 추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완벽하게 추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만일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그는 돈방석에 앉을 것이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다. 인간의 핏속에 있는 회춘물질은 마음에 의해서 생성된다는 것을 승리제단 조희성님이 처음 밝혔다. 그것은 바이오트론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영생할 마음을 가지면 생성된다는 것이다. 바이오트론을 활성화하는 마음을 가지면 세포의 노화를 극복하고 영생을 하게 된다는 놀라운 학설이다.

- 노화는 질병이 아니다 -1편
<https://youtube.com/3zNiv9LqVdg>
- 노화는 질병이 아니다 -2편
<https://youtube.com/apLPN4b66U>
많은 시청 바랍니다.*